

고금리 못 버티고...쏟아지는 부동산 경매 물건

광주지법 1~5월 2279건...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 증가 입찰법정 시민들 몰려 복새통...부동산 경매 물건 67개 아파트 인기...입찰자 예년 2배·경매 매각가 50% 늘어나

12일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 지방법원 내 경매법정. 이제 막 법정이 문을 연 시각이지만, 법정 안팎에는 기일입찰표와 경매업체에서 배포한 경매 정보지를 손에 든 시민 50여명이 몰려 복새통을 이뤘다.

광주지법 경매5계가 주관한 이날 경매에 부처진 물건(사건)은 총 67개. 전부 부동산으로, 채무자가 결국 돈을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부처진 물건들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논, 밭, 주택, 대지 등이 이날 경매에 나왔는데, 입찰자들은 한 손에는 전화기를 붙잡고, 남은 한 손으로 경매 정보를 훑어저러 쳐다보며 막판까지 금액을 고심 중인 것처럼 보였다.

경매법정 내부에는 기표소처럼 생긴 구조물 8개가 있었는데, 입찰자들이 오가느라 비어있을 새가 없었다. 입찰자들은 이곳에 들어가 입찰표에 금액을 적은 뒤 입찰봉투에 담아, 투명한 아크릴 통 안에 넣었다.

오전 11시 10분이 되자 경매 집행관이 입찰종료

를 알렸고, 이후 법원 직원들은 입찰봉투를 사건별로 분류해 최고액 입찰자를 가리기 시작했다. 이후 집행관이 사건번호별 최고액 입찰자를 호명하는 시간이 되자, 법정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어 가득 차다.

이날 가장 많은 입찰자가 나온 물건은 아파트였다.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부영아파트(84.99㎡)로 1차례 유찰된 최저경매가가 2억2400만원짜리 물건이었는데 7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밖에 광산구 수완동 주택(감정가 약 17억원)에 6명, 광산구 쌍암동 아파트(감정가 5억4000만원)에 5명의 입찰자가 나왔다.

이 곳에서 만난 한 경매업체 직원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대부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나온 부동산들이다. 많은 날엔 100건이 우습다"며 "최근에 경매 물건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법원을 찾는 시민들이 80% 가량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끝을 보이지 않고 추락하는 경기상황에 부동산 경기도 덩달아 바닥을 치면서 법원 경매에 부처지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내부가 경매에 참여하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는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매 접수건수만 해도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법원 경매건수도 전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4월 광주지법과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모두 2771건으로 전년 같은기간(2440건)보다 13.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지법 관내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지난 2014년 2642건 이후 최고치로,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접수된 사건이 많다 보니, 경매에 부처진 물건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광주지법을 포함한 관내 법원에서 경매에 부처진 물건은 6186건을 기록했다. 전년(4859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로, 광주지법만 보면 올해 1~5월 동안 2279건으로 전년(1341건)같은 기간보다 무려 7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매각으로 이어진 경매도 올해의 경우 5월 1747건으로 전년(1455건)보다 20% 많았다. 올해 경매 매각가 역시 약 2589억원으로 전년(1730억원)보다 49.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에서 경매 중인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면서 지난 2021년에 접수된 물건도 있는 데다, 최근 신규 접수가 크게 늘어나, 앞으로 경매에 부처지는 경매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경제에 관계자는 "최근 경제에 안팎에서는 지금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좋은 순간이라는 소리마저 나온다"며 "개인 채무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고정이여신(부실채권)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 경제가 참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 사진: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중공업, 美메म्피스·창원 초고압변압기 공장 동시 증설

1천억 투자 생산능력 40% 확대 "글로벌 시장 톱클래스 자리잡겠다"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메म्피스와 경남 창원에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동시에 증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전체 초고압변압기 생산 능력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발전 증가와 더불어 전력 사용량이 높은 인공지능(AI), 전기차,

반도체의 인기로 세계 각국에서 전력망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메म्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에 시험 라인을 추가하고 시험·생산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메म्피스 공장의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2배로 늘어난다.

초고압변압기 마더플랜트인 창원 공장에는 신규 시험실을 구축하고 생산 설비를 증설해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에서 전력망 보강 및 신규 증설 중심으로 수익을 늘리고, 유럽에서 환경친화적

전력기자재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서며 전력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전력망 운영사인 내셔널그리드로부터 대규모 위상 조정 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 바람에 제대로 올라타서 글로벌 시장에서 톱클래스 공급업체로 자리 잡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공동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광주호텔에서 '2024년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흥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조창환 전남연구원 부원장, 이찬영 전남대 대학원 경제학과 BK팀장 등 관계자와 한은 경제 마스터즈 40여명 등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는 유종민 흥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RE100 활성화가 전남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유 교수는 지역 연산모형을 사용해 전남지역의 RE100 산단허브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발표했다.

이어 박용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유치 위한 전남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는 데이터센터 시장동향,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 전남 친환경 데이터센터 유치방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흥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들이 지자체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계의 미래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 하에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급식봉사 남구 서동 '행복 나눔 밥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2일 광주시 남구 서동의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 (이사장 박중수)에서 '행복 나눔 밥퍼'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복 밥퍼는 광주국세청이 2007년부터 '사랑의 식당'을 후원하면서 독거·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펼쳐 온 무료급식 봉사활동으로, 이날 양동구 청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리탕, 흥이무침, 떡, 과일 등 식사를 정성껏 마련해 300여명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영세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양동구 청장은 "박중수 원장님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광주국세청 직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식사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동구 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나눔 문화를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광주

공원 현충탑을 찾아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12일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용기 전남대학교 교수와 정관호 조선훈 대표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용기 공동위원장은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공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권익보호위원회가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내일부터 청약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국채의 첫 청약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

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체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오는 17일까지로,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일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한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집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역대 최저 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악화

지난해 고금리 부담 속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모두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3만2032곳)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 비용)은 지난해 219.5%로, 전년의 443.7%보다 대폭 하락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편제 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 기업 비중은 34.6%에서 40.1%로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의 기업 비중은 38.9%에서 31.7%로 줄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상승하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상승했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모두 나빠졌다. 먼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2년 16.9%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20년(-3.2%), 2015년(-2.4%)에 이

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석유정제·코크스를 중심으로 2.7%,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1.2% 각각 매출액이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8.1→2.8%)과 중소기업(12.3→1.4%)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란히 떨어졌다.

연간 총자산증가율도 2022년 7.8%에서 지난해 5.4%로 낮아졌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3.8%)과 세전 순이익률(4.4%)은 2022년의 5.3%, 5.1%와 비교해 모두 하락했다.

이 중 영업이익률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6.3%에서 3.2%로, 세전 순이익률이 6.3%에서 5.2%로 각각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4.1%에서 4.4%로 올랐으나, 세전 순이익률이 3.7%에서 3.6%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2022년 105.0%에서 지난해 102.6%로 다소 낮아졌고, 차입금 의존도(28.8%)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8.17(+22.85)
↑ 코스닥	870.67(+2.31)
↓ 금리(국고채 3년)	3.307(-0.034)
↓ 환율(USD)	1376.20(-2.10)